



금빛 질주를 향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4일 서울 태릉 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국가대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공개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A효과 KIA에는 없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에 대한 평가는 후했다. 우승후보로까지 언급 됐던 이유 중 하나에는 'FA(자유계약) 효과'가 있었다.

1년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선동열호'의 두 번째 시즌, KIA는 신바람 질주를 위해 거금을 들여 김주찬을 영입했다. 내부에서는 에이스 윤석민과 톱타자 이용규가 FA를 앞두고 있던 만큼 세 명의 대아가 만들어낸 'FA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시즌 중반에는 트레이드를 통해 또 다른 FA 준족 송은범까지 타이거즈맨이 되면서 'FA 효과'는 올 시즌 KIA의 주요 전력이 되는 듯했다.

계막 즈음까지만 해도 'FA 효과'는 쓸쓸했다. 김주찬이 가세하면서 외야에는 치열한 생존 싸움이 벌어졌다. 내부 경쟁으로 외야는 물론 타선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로 쉬어갈 곳 없는 타순이 구축됐다. 불붙은 방향으로 시범경기 1위 질주를 하며 심상치 않은 시즌을 예고했다.

하지만 개막전부터 펼칠수록 공격 야구의 참병이 됐던 김주찬이 개막 4경기 만에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이용규와 윤석민도 대표팀 휴유증에 골골 앓으면서 FA 대안이 시작됐다.

솔로루 스타터 이용규는 고질적인 어깨 통증이 겹치면서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개막 후 두 달간 타율은 0.238, 출루율도 0.340에 머무는 등 초반 부진에 속앓이를 했다. 타격이 살아나자 이번에는 수비에 문제가 생겼다. 어깨 통증이 악화되면서 중견수가 아닌 지명타자가 이용규의 자리가 됐다. 김주찬·김원섭의 부상, 김상현의 트레이드 속 이용규의 수비 공백이 겹치면서 야수진 운영에도 제약을 생겼다.

윤석민도 어깨 부상으로 기대했던 FA 시즌을 보내지는 못했다. 5월4일야야 시즌을



김주찬



이용규



윤석민

거액배팅 영입한 김주찬 부상에 초반 반짝 아쉬움

예비후보들 이용규·윤석민·송은범도 성적 부진

SUN호 우승후보서 추락... 스토브리그 벌써 관심

시작한 윤석민은 감을 잡느라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윤석민 다운 기량을 회복하자 이번에는 4강에 비상이 걸리면서 선발에서 마무리로 이동해 해야 했다. 위기의 팀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좀처럼 등판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마무리 전환 후 한 달 동안 9번의 등판에 나서 1.96(9.20이닝)의 평균자책점으로 5세이브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송은범의 FA는 물거품이 됐다. 불펜의 든든한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송은범이지만 잇달아 난타를 당하며 KIA의 4강

이 흔들렸다. 이적 후 6.61의 평균자책점, 1승 3패 2세이브 5홀드 그리고 3개의 불펜 세이브를 남기며 결국 2군행이 결정됐다. 2군에서도 제 구위를 찾지 못한 송은범은 결국 FA 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FA에 올랐지만 KIA의 FA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면 투·타의 대어로 꼽히는 윤석민과 이용규가 FA가 된다. 올 시즌 부상 여파로 팀의 에이스와 톱타자 다운 기량 발휘를 하지는 못했지만 두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이자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얼굴이다. 두 선수의 거취는 다가올 스토브 리그

최대의 관심사.

일단 윤석민의 눈은 해외로 가 있다. 빅 리그에서도 윤석민의 경험에 높은 점수를 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잔류를 선택할 경우 KIA의 머리가 복잡해진다.

4관왕에 올랐던 2011년에 이어 지난 겨울에는 '리그 정상급 선수에 준하는 대우'라는 윤석민의 요구와 '연봉고과'라는 구단 측 입장이 맞물리면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이용규의 겨울도 예측불허다. 제 2의 야구 인생을 펼친 곳이자 9년의 세월을 보낸 팀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어깨 수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올 시즌 FA 시장이 과열되면서 KIA는 김주찬에게 예상 외의 거액을 배팅했다. '마음잡기'라는 과정과 함께 협상 금액의 기준점에 변화가 생긴 만큼 현실적인 '돈'문제로 대박 FA 협상을 앞둔 KIA의 고민이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등번호 4번' 기성용 선덜랜드 중원에 힘 보탠다

14일 아스널 외출과 맞대결 관심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로 임대된 기성용(24)이 새 팀에서 등번호 4번을 받았다.

선덜랜드는 3일(이하 현지시간) 구단 공식 트위터에서 "기성용의 등번호가 4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덜랜드는 트위터에 기성용이 선덜랜드 유니폼을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지난 시즌까지 스완지시티에서 뛰던 기성용은 스완지시티가 울버를 미드필더를 대거 영입하며 경쟁에서 밀려날 위기를 맞았다.

기성용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 스완지시티에 이적을 요청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선덜랜드와 1년 임대 계약에 사인했다.

파울로 디 카니오 선덜랜드 감독은 기

성용에게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디 카니오 감독은 선덜랜드 지역지인 선덜랜드 에코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체력,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기성용은 진정한 플레이메이커"라며 "미드필더가 늘어나면서 상대 팀도 우리 팀에 압박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 카니오 감독의 발언으로 볼 때 기성용은 일찌감치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선덜랜드의 다음 경기는 14일 아스널과의 홈 경기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결국 지난달 31일 선덜랜드와 1년 임대 계약에 사인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골 가뭄 해결사 떴다

내일 밤 아이티전 원톱에 지동원, 좌·우날개 손흥민·이청용 기용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의 대업을 꿈꾸는 홍명보호(號)가 유럽과 선수들의 골 결정력을 발판 삼아 출범 이후 4경기 연속 무승(3무1패)의 부진 탈출에 도전한다.

홍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일 밤 8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북중미의 아이티(세계랭킹 74위)를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7월 동아시아컵을 통해 처음 출전한 홍명보호는 2무1패(1득점·2실점)에 이어 페루와의 평가전에서도 득점없이 비기면서 심각한 골 결정력 부채를 노출했다.

이번 아이티전에는 유럽과 선수들이 공격

진에 대거 합류하게 되면서 '마수걸이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티는 2014 월드컵 예선에서 일찍 탈락했지만 지난 1월 세계랭킹이 38위까지 오르는 등 최근 급부상하는 팀이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빠르고 정확한 패스가 장점으로 손꼽힌다. 이번 평가전에 파견하는 18명 중 14명이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해외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보호 감독은 아이티전에서 해외파-국내파의 '최적 조합'을 점검한 뒤 10일 '강호' 크로아티아전에서 최하의 '베스트 11'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홍 감독은 소집훈련에서 23명을 두 팀으로 나눠 경쟁 체제를 조성했다.

4-2-3-1 전술을 가동하는 홍 감독은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지동원(선덜랜드)을 낙점하고 새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근호(상주)와 구자철(볼프스부르크)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도 경쟁이 심하다. 홍 감독의 첫 시험대에 오른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은 아이티전에 왼쪽 측면 날개로 선발출전 가능성이 크다. 경쟁자인 김보경(카디프시티)이 오른쪽 발목이 좋지 않아 무리하게 아이티전에 내세우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른쪽 날개는 이청용(볼턴)과 고요한(서울)의 경쟁 체제지만 이청용으로 무게추가 기운다. 중앙 미드필더는 하대성(서울)-이

아이티전 한국 예상 베스트 11

6일 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SBS 중계)



명주(포함) 조합이 유력하다. 홍 감독은 3경기에서 하대성-이명주 조합을 가동했다.

포백은 '백전노장' 광태휘(알 사랍)의 합류로 변화가 예상된다. 홍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수비진을 조율할 베테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태휘를 호출했다. /연합뉴스



김준엽

이광진

박희성

김지성

김준엽·이광진·박희성·김지성 등 빛고을 전사

K리그 챌린지 22R 베스트 11

4명의 빛고을 전사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4일 K리그 챌린지 2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부천을 1-0으로 꺾고 홈 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결승골의 주인공 김준엽과 함께 이광진·박희성·김지성 등 4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후반 41분 결승골을 넣은 김준엽은 '왕성한 활동량을 과시하며 2선 공격을 이끈 끝에 극적인 결승골을 폭발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움을 기록한 신입생 이광진도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효과적인 패스워크로 팀 공격력을 배가했다'는 평가 속에 20라운드에 이어 다시 또 베스트 11이 됐다.

수비수 박희성과 골키퍼 김지성도 안정적인 부진의 공세를 막으며 당당히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박희성은 '상대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냈고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팀 공격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지성은 '상대 슈팅을 차단했고 후방서 잘 지휘하며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호평 속에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도움을 기록한 신입생 이광진도 '팀에